

# 계엄 문건 작성 기무사 '쌍끌이 개혁' 돌입

### 국방부 검찰단, 불법 정치행위 수사 ... 개혁TF, 본부·60단위 부대 등 조직 개편

국방부가 '덧글 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 때 유족을 사찰하고,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쌍끌이 개혁'에 나섰다.

군내 검찰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이 이 같은 불법 정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이하 개혁TF)는 고 유 업무인 보안·방첩 중심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혁TF는 이날 중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의 덧글공작을 통한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가장 관심을 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8일 "덧글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근 시작한) 기무사 세월호TF 수사는 당시 TF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단은 기무사가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경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무사의 관련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까지 벌인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기무사대원 60여명은 지금도 재직 중이며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기무사 현역 장성이다. 이 중 일부는 촛불집회 때 계엄검토 문서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강원 참모장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에도 참여해오다가, 비만여론이 들끓자 이날자로 '개혁TF'에서 해촉됐다.

개혁TF가 추진 중인 조직 슬림화 작업은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안과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크게 줄이고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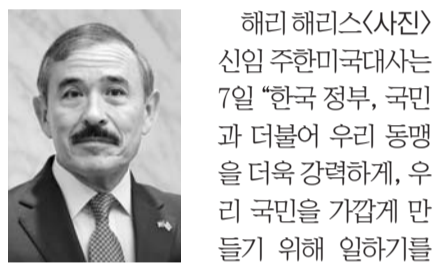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무사 본부 조직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기무 예비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예하 부대 가운데서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를 저울질하고 있어 보인다.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긴 이들 '60단위 기무부대'는 기능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4000여명 수준인 기무사의 인원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원 감축 규모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고 9명인 기무사 장성 수도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주한美대사 부임 1년 6개월 공백 끝



해리 해리스(사진) 신임 주한미대사는 7일 "한국 정부, 국민과 더불어 우리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우리 국민을 가깝게 만들기 위해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와 국민에 대해 많이 배우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주한미국대사로서의 향후 활동을 묻자 "동맹국인 한국과 워싱턴의 국무부와 함께 한미관계 및 북한과의 관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65년 동안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를 넘은 세계 평화와 안정의 기둥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나은 친구, 파트너, 동맹국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해리스 대사는 1956년 일본 요코카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 조종사 과정을 이수했다. 정찰기 조종사를 시작으로 전술장교, 해군 참모장, 6함대 사령관, 합참의장 보좌관, 태평양함대사령관을 거쳐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냈다. 그가 이날 임국해 부임함에 따라 1년 6개월간 이어져 온 주한 미국 대사 공백은 해소됐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전남 보성군 미력천 범람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차원에서 보성 태풍 피해 지원"

### 김부겸 장관, 호우 피해 현장 찾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7호 태풍 '쁘르베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을 찾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보성군 미력천 용정리 미력천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폭우피해를 본 전남 보성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거쳐 금액 기준이 되면 선포 건의를 검토하겠다"며 "(건의안의) 요건이 있

다. 보성군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복구작업에 나선 31사단 장병과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19구조대, 소방안전본부, 자원봉사자들과 악수를 하며 격려했다. 복구작업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로더 등 중장비 8대도 동원됐다.

제방이 무너진 미력천에서는 직접 삽을 들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황주홍 국회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등과 함께 복구작업을 도왔다.

한편, 보성지역에는 지난 2일 3시간 동안 180mm의 기습 폭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모원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는 등 하천 36곳의 제방이 유실됐으며 농경지는 400여ha가 물에 잠겼다. 보성군은 모원저수지 개량 복구에 30억원, 지방하천인 미력천 복수에 202억원 등 3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일부터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 1278명이 투입됐으며 하천과 도로 침수, 축대 붕괴 현장 등 모두 98곳에서 복구작업을 마쳤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국제지질공원 대회 개최

### 오늘~12일 DJ센터 ...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비전 선언

무등산세계지질공원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국제지질공원 대회가 열린다. 이 행사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고 보전·활성화 방안을 담은 비전을 선포한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9~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지질공원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패트릭 맥키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장 등 전문가, 해설사, 국가지질공원 사무국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또 전국 지질공원 해설사들의 시연 경연대회(9일), 무등산권 지질공원 현장 워크숍을 위한 집중 교육(10일) 등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이 함께 하는 비전 선포와 퍼포먼스도 10일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비전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에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무등산권역 지질유산의 가치 발굴 및 역사·생태·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아시아권역 세계지질공원을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광주시와 담양군 전역,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051.36㎢ 규모다.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봉(천·지·인왕봉), 서석대, 입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개소이며, 역사문화명소로는 아시아 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개소가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 청송, 무등산권 등 3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고 울릉도·독도, 부산 등 10개소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폼페이오 "북 최종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의 최종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 외부성이 대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는 김정 고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YF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진전은 고무적이

지만 이것만으로 기존 제재 조치의 완화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대상과 관련, "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해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서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개소이며, 역사문화명소로는 아시아 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개소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된 검증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6~7일 평양을 방문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이 협상에서 조속히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고 핵신고·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한 측은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이 끝난 뒤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 외부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해 협상 성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김태산. 010-9374-8585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300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 장성 북이면 장성택 민권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층주택 118㎡ 1억9500
- 화순 동면 땅 706㎡ 2층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원 2억6천

**투자·매도·교환**

- 귀농생활이나 농장적합 보성 검백 남양리 61086㎡ 2억6천
- 북구 장동동 주거지역 답 2925㎡ 은행 3억 매도 4억6천
- 장흥 부산면 산 566083㎡ 은행 2억3천 매도 6억
- 무안 망운면 목사리 도로점 전 2238㎡와 현경면 해운리 대지 555㎡ 귀농생활적합 은행 9천 인수하고 25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층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가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봉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을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층주거지 3192㎡ 다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땅 792㎡ 팬션 건평 867㎡ 은행 4억7천 매도 10억
- 동구 충장로57가점 수기동 대지 168㎡ 2층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북구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실 830㎡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카센타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층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다스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유가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해준다(소유권이유가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이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타인이기 싫으신 태양광발전소 사업대리
- 태양광 영업 인체 모집**
  - 태양광 영업유망지역
  - 태양광 전문 영업 유망지역
  - 태양광 영업유망지역

**ONE-STOP TOTAL SOLUTION**

다스코: 010-9334-2937, secol@daesoo.com, secol@daesoo.com  
세라코: 010-9334-2937, secol@daesoo.com, secol@daesoo.com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신사업개발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 순
		영업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수정개발	영업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공학계)	나 주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영업(영업개발)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 주	
		영업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유대		

· 근무지역: 5당점 062)513-2937, secol@daesoo.com, secol@daesoo.com  
· 근무지역: ~ 채용시까지